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박희현 해남군수

“농·수산 경쟁력 사활 건다”

“희망찬 해남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현 해남군수는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진흥,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희망찬 해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박군수는 올해 군의 기반산업인 농·어업 육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시책으로 추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쌀 친환경 시범단지를 확대 지정하고 겨울배추 절임 가공공장과 같은 농수산물



해남지역은 이순신 장군과 연계된 문화유적지와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박군수는 올 한해 읍·면별 특성을 살린 체험관광과 역사 문화자원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명랑대축제’와 ‘땅끝 해맞이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도 군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박군수의 구상이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 ‘함께하는 복지 해남’ 실현은 박군수가 관심을 쏟는 분야다. 고령층 무료 의료서비스 체계를 확

회원산단·배후도시 육성

가공산업 육성, 전북·김 등 기르는 어업 지원을 통해 농어업 소득 증대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부양시책도 적극 펼쳐진다. 지역경제 진흥 차원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 해남을 전지훈련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박군수 복안이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신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 특히 조선산업을 선도하게 될 85만 평의 화원지방산업단지과 배후도시 육성은 올 해남군의 최대 역점사업이다.

이와 함께 서남부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화원관광단지, 관광레저기업도시 등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일즈 행정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박군수는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대한 방안도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제시했다. 해남의 대표관광지인 두륜산권과 우수영권, 땅끝권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도록 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해양박물관, 실버휴양시설, 공룡자연사유적지 개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무의탁 노인 의료 지원

립하고 무의탁 노인 지원 사업이 확대 지원된다.

군민들의 평생 건강 관리체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첨단 의료장비와 우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 군수는 “군민이 주인 되는 위민행정을 펼치기 위해 군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로 행정혁신을 이루겠다”면서 “‘해남에 살고 있어 행복하다’는 말을 군민 모두에게 듣고 싶다”고 소망을 피력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화순 동복댐 상류 축사 신축 논란

주민들 “수질오염 우려” 규제를 郡 “수변구역 밖·허가 불가피”

동복댐 상류인 화순군 북면 임곡리에 지난해 말부터 축사가 신축되고 있어 수질오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화순군 북면 임곡리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동복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로 축사와 토지 보상을 받은 뒤 인근 필지로 옮겨 축사를 신축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2002년 환경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 축사·폐수배출 시설 건립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A씨 소유 토지 등 인근 15필지는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주민 이모씨는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도 상수원에 직접적인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허가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과 인접 지역이기는 하나 수변구역에서 제외돼 있어 허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전남 태양광 발전 건설 붐

일조량 풍부·저렴한 땅값·신재생에너지 메카로

112개 업체 17개 시군서 전국 발전량 85% 생산

전남지역이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 재생에너지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현재 112개 업체가 17개 시·군에 설비용량 총 78Mw의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아 이중 24개소에서 6115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신안 8개소 18만195kW ▲무안 6개소 10만kW ▲해남 9개소 7천289kW ▲고흥 20개소 6천209

kW ▲영광 5개소 5천695kW ▲함평 6개소 5천145kW ▲강진 3개소 4천700kW 순이다.

전남지역 태양광 발전은 지난 2005년 3월 순천시 별량면에서 에너지농장(주)이 150kW의 상업발전 가동을 시작으로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나서면서 현재 전국 발전량의 85%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주)한라전공이 무안군 해지면 8천600여평의 부지에 건설할 1Mw급 민

간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10월 상업운전을 개시해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

고흥군은 독일 IBC Solar AG사와 솔라테마파크 건립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거금도 석산지구 4만여평에 7Mw급 태양광 발전소와 4층 규모의 태양광 홍보전시관을 올해 말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신안군도 2008년 완공목표로 지도읍 20만6천500평 부지에 1천500여평을 유치해 19.6Mw급 태양광발전소 및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를 건설한다.

영광군 역시 흥농을 성산리와 계마리 인근 1만8천여평 부지에 최대 3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소를 2008년 3월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무안·영광·고흥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과 함께 전시관 등 ‘솔라(SOLAR) 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타지역보다 일조량이 10%이상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땅값 등 태양광발전소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빛을 모으는 집광판(태양전지)을 통해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고 다시 전환장치를 이용,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발전 방식으로 한국전력에서 배당 677.38원에 매입하고 있다.

/송기용기자 song@



포탄 폐기물 수거 나선 軍 장병들

군 기계화학교 장병들이 담양군 대전면 전차포사격장 경계 부근에 매몰된 포탄 폐기물 수거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일대에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시작한 2001년 이전 매몰된 포탄 폐기물들이 최근 무더기로 발견돼 토질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성실·청렴 공직자 인사청탁 받습니다”

황주홍 강진군수가 인사 추천이나 소개, 자랑 등을 하고 싶은 공직자를 뚝뚝하게 청탁(?)하는 공개 시스템을 마련,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황 군수는 최근 군정일기를 통해 “인사를 앞두고 일부가 외부의 힘을 빌려 청탁을 하려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에 성실하고 청렴한 특장공직자를 홍보 청탁하고 싶은 경우 홈페이지 ‘인사추천’ 코너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강진군수

계속되는 인사실행 ‘눈길’

황 군수는 “이미 군 내부 통신망을 이용한, 당당하고 뚝뚝한 ‘자기청탁’은 보장돼 있으며 이는 권장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인사추천 코너에는 추천자 설명과 함께 이른바 ‘홍보청탁’ 내용을 적도록 했으며 군수만이 열람할 계획이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인사청탁자와 해당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한데 이어 최근에는 과장급인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정경 발표회를 가진바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주몽 세트장’ 고대사 역사문화센터 된다

드라마 ‘주몽’의 촬영 세트장인 나주시 공산면 삼한지 테마파크가 고대사 역사문화센터로 변모된다. 나주시는 삼한지 테마파크에 민자 등 60억원을 들여 고구려와 발해, 동예, 옥저, 마한 등 한민족의 고대사 역사·문화센터를 조성키로 했다.

오는 4월 드라마 종영에 맞춰 조성될 역사문화센터에는 고구려 고분벽화 등 고대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과 역사·문화체험관이 들어선다.

또 고구려 연구회 등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특별기획전과 학술대

시, 4월 드라마 종영 맞춰

60억 들여 한민족 고대사

전시관·체험관 조성키로

회 개최 등 전국 유일의 고구려 역사문화체험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트장내 1천여평의 저수지에는 연꽃 방죽 수변공원과 목교(木橋),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8만여평의 세트장 앞뜰은 사계절 친환경 체험장으로 조성된다.

세트장 앞 다야들에서 구진포-

금강정을 잇는 영상강에는 황포돛배와 유람선을 띄우는 등 영상강을 활용한 수상레저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청소년 수련원과 교육관 운영, 토산품, 공예품 전시 판매장, 마상궁도장, 영상강과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산책로(800m)도 개설할 계획이다.

고대사 역사문화센터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 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며 태양사신기 등 후속드라마와 영화 유치 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Advertisement for a math course. Text: '중력을 노트필기! 특수방법으로 초시부터 중3과목까지 12개월 완성! 이제는 수학도 논술시대!! 문제만 외치는 것은 수험공부 절대 시키지 마라! "수학을 못하는 것은 100% 실생남 책임!"' Includes a photo of a man and contact numbers 376-3683 and 574-4422.

Advertisement for 'Gambal' (가발) hair salon. Text: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and '기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 이수재원장 직점시술관리'. Includes photos of staff and contact information.